

정론직필 68년...지역민과 애환 함께한 호남역사 산증인



1980년 12월 1일 김종태 전 사장 등이 걸고 있는 광주일보사 현판.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일보 걸어온길

'창간 68주년'을 맞은 광주일보의 발자취는 그 자체로 광주-전남의 역사였다.

광주일보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편다'는 가치로 6·25 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IMF 외환위기, 한·일 월드컵,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1952~1959년 창간 초기=1952년 2월11일 발행된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2개 면이었다. 제호(題號)는 한자 중서(中書)로, 오른쪽 상단에 한국 지도의 바탕 위에 '전남일보(全南日報)'라고 썼다. 창간호는 당시 사회·정치 상황을 반영, 1면 대부분을 판문점 휴전회담 기사로 장식했다. 창간호는 2000부가 인쇄돼 광주 시내에 배포하고 지방에도 발송했다. 1958년 5월1일부터는 지방지 최초로 매일 4개면 발행에 들어갔다. 1959년 1월부터는 월 2회 휴간하던 정기휴간제를 폐지하고 연중무휴로 신문을 발행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도 병행했다. 창간 초기 나주 비료공장 유치 운동을 벌이고 호남 예술제 창설(1956년), 지역특산물 전시회, 미스전남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마라톤·야구·배드 등 각종 대회를 열고, 어려운 이웃과 이재민 돕기에도 앞장섰다.

◇1960~1970년대 시련과 역동의 시기=1960년대 초반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쿠데타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했다. 옛 전남일보는 군부대의 부정선거 실상과 투표장 분위기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기사를 냈다.

또 광주-전남에서 진행된 4·19 시위를 신속히 보도, 시민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도 자처했다. 1965년 6월3일자 신문은 '청구권 소멸이란 무슨 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로 굴욕적인 대외 외교 협상을 비판했다.

흔란했던 시국과는 달리 사세는 승승장구했다. 1962년 12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로 사옥

5·18민주항쟁 진실규명 위한 매년 집중보도 '광주의 아픔' 달래 나주 비료공장 유치·호남예술제 등 지역발전·사회공헌 사업 앞장

을 이전하면서 '금남로 시대'를 열었다. 날로 늘어나는 부수 확장에 따라 옛 전남일보는 1968년 10월 9일 기존의 전남북 2도지(道紙)에서 전국지(全國紙)로 등록했다.

1963년 11월에는 취재전용 비행기 '무등산호'가 도입됐다. 무등산호 도입으로 보도 기능이 한층 강화됐고, 사건 현장의 항공취재는 물론 각종 기획기사 취재에도 입체적으로 활용됐다.

이 보다 앞서 밤시간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충장로의 한 건물 5층 옥상에 전광뉴스판을 설치, 가운데 들어갔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6년에는 월남전의 생생한 취재를 위해 1개월간 종군기자를 특파하기도 했다.

발전을 거듭한 옛 전남일보는 1969년 7월16일 지방지 최초로 컬러 신문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 옛 전남일보는 종합매스컴센터를 구축, 언론 기업으로서 터전을 다졌다.

◇전일방송 10년=1971년 4월24일 정오를 기해 첫 전파를 송출했다. 빠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으로 매 시간마다 편성된 전일방송의 뉴스는 타 방송의 추종을 불허했다. 특히 야구 중계방송, 각종 프로그램 공개방송, 광복 20년 등은 지역민들의 문화감동을 풀어줬다. 1970년대 전일방송의 공개방송이 열린던 광주공설운동장은 수만명의 인파가 운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일방송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정책으로 첫 전파를 탄 지 3507일 만인 1980년 12월1일 0시를 기해 KBS로 강제통합되는 비운을 맞았다.

◇5·18민주항쟁과 광주일보 창간(1980년대)=광주민주항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1980년 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10일간 신문 발행이 중단됐다. 5월 27일 전남도정 집합 후 시민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해사였다. 계엄 선포에 따라 보도 검열이 진행됐고, 공정 보도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일 다시 발행한 신문은 1면에 "애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필설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을 참고 견디신 애독자 여러분 앞에 보낼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로 시작한 '속간의 말씀'을 담았다. 그 아래에는 "광주사태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라는 사원 일동 명의의 7단 광고를 실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옛 전남일보와 옛 전남매일신문은 신군부의 언론사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80년 11월29일 문을 닫는다. 두 신문은 통합돼 제호를 '광주일보'로 하고 12월1일 창간호를 냈다.

광주일보는 6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실규명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1988년 2월 4일자 사설에서 광주사태 치유책 마련을 위해 발족한 민주화추진위원의 활동에 대해 "광주사태는 보상문제 보다 진실규명이 앞서야 한다. 사건자체의 원인과 실상 등 진실을 덮어둔 채 사건을 매듭지으면 또 다시 역사는 왜곡되고 그 역사는 조명할 필요성을 잃게 되므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후로도 현재까지 광주일보는 5·18진실규명을 위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5월이면 5·18관련 기사를 집중 게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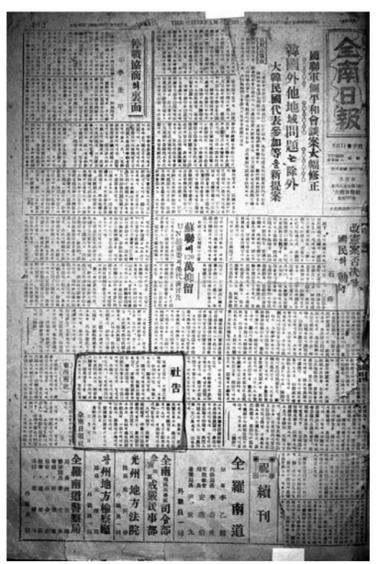
◇1987년~현재=1987년 발표된 6·29선언으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언론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 언론의 흥수시대와 IMF경제위기, 신문산업 쇠락 등으로 언론환경이 열악해졌다. 그러나 광주일보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1996년 6월 인터넷 광주일보(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했다.

1994년 4월에는 전면 가로쓰기로 신문이 제작됐다. 문화예술 매거진 월간 '예향'은 지난 1984년 10월 창간됐다가 2002년 2월(통권 209권) 발간을 멈췄다가 2013년 4월 복간됐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980년 6월 2일자 옛 전남일보 1면 '무등산은 알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52년 2월 11일자 전남일보 창간호.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상공을 날고 있는 광주일보 취재 전용 항공기 무등산호.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일보 지령 2000호.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982년 3·1절 광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